Trust
Talent
Tenacity
Togetherness

09-32 (통권 414호)
2009. 8. 25.

VIP REPORT

■ 국내 제조업의 3대 취약 요인과 시사점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발 행 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국내 제조업의 3대 취약 요인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국내 제조업의 취약 요인 국제 비교 ····· 8

3. 정책적 시사점 ····· 29

■ HRI 경제 지표 ····· 33

1. 개 요

한국은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제조업이 경제 성장의 주력 부문인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번 금융위기 때에도 국내 제조업은 반도체, LCD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자동차가 세계 6위권으로 진입하는 등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였다. 이러한 점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 경제가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큼이나 국내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자료의 제약상 1인당 부가가치, 중간재 국산화율, 에너지의존성의 3개 항목에 국한하여 제조업 5대 강국(부가가치액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과 비교를 해 보았다. 나아가 분석 결과 도출된 국내 제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도 모색해 보았다.

2. 국내 제조업의 취약 요인 국제 비교

■ 전제조업 외형 지표 비교

2001~06년 기간 동안 국내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6.5%로 조사 대상 6개국중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6개국 평균 2.2%). 특히 국내 제조업 내 투자가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연평균 28.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자료가 보고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한 5개국 평균 18.6%).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그러나 국내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국내 전제조업의 2006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명목부가가치액 / 취업자수)은 연평균 약 5만 3,000달러로 대상 6개국 평균 약 7만 8,000달러의 68% 수준이다. 특히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인 미국(약 10만 9,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9개 주요 제조업중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의료·정밀기기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이 6개국 평균대비 45.7%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기계(52.1%), 전기기계(55.2%) 등도 타 산업에 비해 제조업 강국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6개국 평균대비 81.7%) 업종은 9개 산업 중에서 제조업 강국과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철강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제품(81.3%)과 휴대폰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음향·통신장비(79.9%)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간재 국산화율

중간재 국산화율이 낮아 제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약하다. 2005년 기준 국내 전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국산중간재투입액 / 총중간재투입액)은 71.4%로 조사 대상 6개국중 독일(69.5%)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국산

화율을 보이는 일본(84.9%)에 비해서는 13.5%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독일의 경우 중간재 국산화율이 낮은 것은 산업연관표상 중간재가 부품·소재는 물론 원자재, 에너지, 서비스 등 광범위한 생산 투입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독일의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는 말할 수 없음)**

주요 산업별로는 반도체, LCD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회계·컴퓨터의 중간재 국산화율이 가장 낮은 36.4%에 그쳐 6개국 평균(62.0%)보다 25.6%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기기계(6개국 평균 대비 13.3%p↓), 조선(11.6%p↓) 등의 국산화율이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88.8%로 6개국 평균(80.2%)보다 오히려 8.6%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는 일본(95.7%)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에너지 의존도

과도한 에너지 의존도가 제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내 전제조업의 2005년 기준 에너지 의존도(에너지중간재투입액 / 명목산출액)는 10.8%로 조사 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6개국 평균 6.9%). 특히 이는 가장 낮은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는 일본(3.4%)에 비해 무려 7.4%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하위 제조업 부문중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석유화학 산업의 에너지 의존도가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가장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에너지의존도는 32.4%로 6개국 평균인 22.8%보다 9.6%p가 높았으며, 가장 낮은 의존도를 보이는 일본(9.3%)에 비해서는 무려 23.1%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속제품(6개국 평균 대비 3.4%p↑), 자동차(1.9%p↑), 조선(1.7%p↑) 등의 순서로 에너지의존도가 제조업 강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주요 제조업의 취약 요인 지표의 국제 비교 >

	1인당부가가치(달러)		중간재국산화율(%)		에너지투입/총산출(%)	
		6개국평균		6개국평균		6개국평균
전제조업	52,979	77,870	71.4	76.6	10.8	6.9
석유화학	86,580	125,843	53.3	61.7	32.4	22.8
금속제품	60,862	74,901	78.5	77.1	7.6	4.2
일반기계	39,656	76,182	87.4	82.4	2.7	1.6
사무·회계·컴퓨터	62,277	87,804	36.4	62.0	2.8	1.3 *
전기기계	41,361	74,871	62.9	76.2	2.7	1.8 *
음향·통신장비	74,599	93,392	59.6	67.5 *	2.6	1.5 *
의료·정밀기기	32,582	71,276	76.6	77.1 *	2.7	1.4 *
자동차	51,978	82,975	88.8	80.2	3.3	1.4 *
조선	57,573	70,466	64.1	75.7	3.1	1.4 **

자료: OECD STAN, OECD IO, EU-KLEMS 자료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1인당 부가가치는 2006년, 중간재 국산화율과 에너지투입/총산출 비율은 2005년 기준
2) *는 5개국 평균, **는 4개국 평균치임
3) 전제조업은 9개 제조업 이외의 모든 제조업을 포함.

3. 정책적 시사점

경제가 발전할수록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부문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 등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온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은 여전히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06년 기준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23.2% 및 20.7%). 또한 2005년 제조업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일본의 27%, 독일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국내 제조업의 성장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견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기술·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앤드(High End)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577 전략'의 추진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의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원천 기술 연구는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원천기술 개발에 정부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한다.

둘째, 노동 시장의 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를 통해 노동력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중 한 가지는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노동력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한국 근로자의 성실성과 교육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노동력의 적재적소에 대한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직업 교육의 내용이 시장의 인력수요 변화 추세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탈공업화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직 기술자 양성위주의 직업교육체계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인력 비중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경제성장 견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의 중간재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한 과도한 외화 유출로 제조업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의 경쟁력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는 국제 표준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부품·소재 부문의 경우 국제 표준의 선점이 시장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에너지 다소비적 생산 구조 개선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유류 가격은 일본의 약 8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용 전력 요금의 경우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OECD 19개국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높은 에너지 의존성 문제는 상당 부분 생산 과정 자체에서의 에너지 낭비적 요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국내 제조업의 높은 에너지 의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업용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투입재의 절감 정도에 따르는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산업 연관이 높은 기업들끼리 집적화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 산업 단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제조업의 수요 시장 육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최근 국내 일부 제조업이 선전하고 있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주요 시장에 대하여 3.8%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빠른 공업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은 물론 충분한 해외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선진국 시장에 대한 FTA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국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1. 개 요

1) 분석 배경과 목표

○ 분석 배경

- 세계 경제가 동반 불황 국면에 빠짐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의 제조업이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음
  - ·반도체: 2009년 1/4분기 세계 D램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55.5%를 기록함
  - ·자동차: 2009년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215만 3,000대로 세계판매순위 4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시장점유율은 7.35%를 기록함
  - ·휴대폰: 한국기업들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09년 1/4분기 28.1%에서 2/4분기 30.1%로 상승, 세계 경쟁사들 중 유일하게 점유율이 증가하였음
  - ·조선: 2008년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596척, 시장점유율은 43.3%를 기록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함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큼이나 국내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 ·국내 제조업은 부품·소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기술경쟁력 약화, 중후장대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높은 에너지 의존성,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의한 세계시장 잠식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분석 목표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자료 이용 가능한 항목에 대해 제조업 강국들과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취약성을 가지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함

- 나아가 분석 결과 도출된 국내 제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도 모색해 보고자 함

2) 분석 방법

○ 분석 이용 원자료: EU 및 OECD가 구축한 패널데이터 및 IO테이블

- EU-KLEMS(www.euklems.net)에서 구축한 성장 회계 계정(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 · EU-KLEMS 성장 회계 계정은 유럽 연합에서 주도하고 있는 EU KLEMS Project의 일환으로 구축된 패널 자료임
  - · 이 데이터 셋은 29개국 (EU-25 + 한국, 일본, 미국, 호주), 71개 산업, 63개 변수, 1970~2005년 기간 등에 대한 연간 패널 자료임

- OECD STAN(www.oecd.org)
  - · OECD의 STAN(STructural ANalysis) 패널 데이터는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약 100여개의 산업에 대해서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투자, 교역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1970년 이후 최근 연도(현재 약 2006년 내외까지 구축)까지 구축되어 있음

-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www.oecd.org)
  - · OECD는 OECD 국가와 일부 EU 국가, BRICs국가들에 대해서 3개 연도(1995, 2000, 2005년), 48개 산업에 대해서 산업연관표를 작성해 놓고 있음
  - ·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3개 연도의 기준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일부 국가는 최근 연도의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음

○ 분석 대상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과 한국

- OECD STI Input Output 2009 edition 데이터상의 자료 이용이 가능한 34개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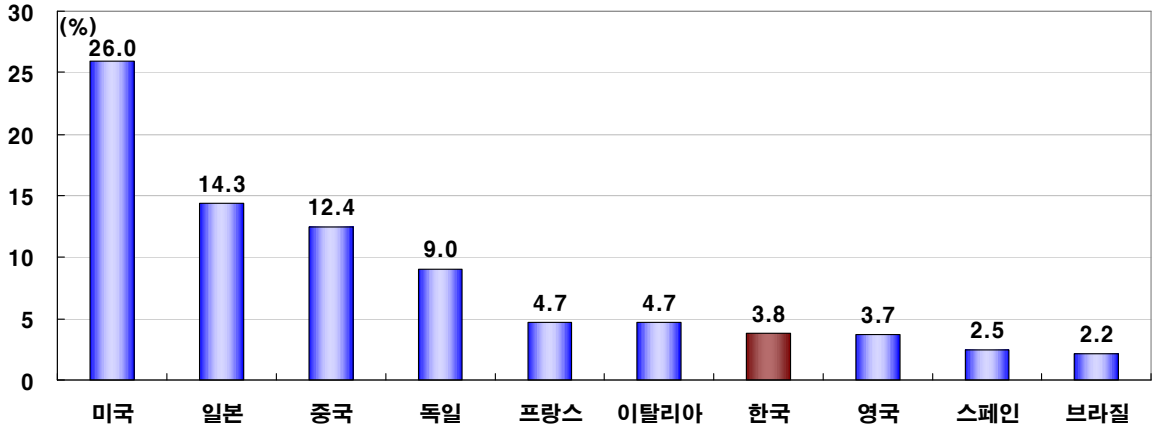
1) 34개국은 OECD 26개국, BRICs 4개국, 기타 4개국으로 구성 (괄호안은 자료의 연도를 의미). OECD 26개국은 오스트리아(2004), 호주(2004/05), 벨기에(2004), 독일(2005), 덴마크(2004), 스페인(2004), 핀란드(2005), 프랑스(2005), 영국(2003), 그리스(2005), 헝가리(2005), 이탈리아(2004), 일본(2005), 룩셈부르크(2005), 네덜란드(2005), 폴란드(2004), 포르투칼(2005), 스웨덴

에 대해서 제조업 부가가치액 기준 상위 5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 주요국 제조업 부가가치생산의 세계 비중은 주요 34개국의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세계 제조업 생산에 대한 비중은 아님
- 단 이들 국가 GD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7%에 달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도 그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참고 1】 참조)

- 2005년 제조업 부가가치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의 순이며, 이중 OECD 데이터 자료가 미비된 중국은 제외됨
  - 이들 5개국은 모두 G7[2](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국가에 포함
  -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분석 대상 34개국중 26.0%의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3.8%로 7위를 기록하고 있음

< 세계 상위 10개국 제조업 시장점유율(2005년 기준) >



자료: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이며, 영국은 2003년 기준.

(2005), 미국(2005), 한국(2005), 체코(2005), 멕시코(2003), 뉴질랜드(2002/03), 아일랜드(2000), 슬로바키아(2000), 터키(2002)임. BRICs 4개국은 브라질(2005), 러시아(2000), 중국(2005), 인도(1998/99). 기타 4개국은 에스토니아(2005), 대만(2001), 남아프리카공화국(2000), 인도네시아(2005).

2) 캐나다의 경우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에 2005년 자료가 구축되지 않음. 다만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 총부가가치는 1,294.1억 미 달러로 대략적으로는 조사 대상 국가중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1%로 브라질에 이어 1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의 경우 OECD STAN에서의 자료 미비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참고 1】 본 보고서 분석 대상 국가의 세계 GDP 대비 비중 (2005년 기준)

국 가	명목 GDP(억달러)	세계 GDP 대비 비중(%)
미국	**124,218.8**	**27.5**
일본	**45,606.7**	**10.1**
독일	**27,944.8**	**6.2**
영국	**22,800.6**	**5.1**
중국	22,357.5	5.0
프랑스	**21,475.0**	**4.8**
이탈리아	**17,807.8**	**3.9**
스페인	11,321.3	2.5
브라질	8,817.5	2.0
멕시코	8,490.3	1.9
한국	**8,450.2**	**1.9**
인도	7,842.5	1.7
러시아	7,642.6	1.7
호주	7,131.6	1.6
네덜란드	6,395.8	1.4
터키	4,826.9	1.1
벨기에	3,769.9	0.8
스웨덴	3,671.6	0.8
대만	3,562.3	0.8
오스트리아	3,045.3	0.7
폴란드	3,039.8	0.7
인도네시아	2,858.6	0.6
덴마크	2,581.0	0.6
그리스	2,462.2	0.5
남아프리카공화국	2,426.8	0.5
아일랜드	2,020.2	0.4
핀란드	1,956.7	0.4
포르투칼	1,857.7	0.4
체코	1,245.5	0.3
헝가리	1,102.2	0.2
뉴질랜드	1,095.2	0.2
슬로바키아	479.8	0.1
룩셈부르크	376.7	0.1
에스토니아	137.9	0.0
34개국 소계	390,818.9	86.7
세계 GDP	450,903.0	100.0

자료: IMF.
주: 세계 GDP 대비 비중은 IMF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분석 대상 산업: 9개 산업 (석유화학, 금속, 일반기계, 사무·회계·컴퓨터, 전기기계, 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자동차, 조선)**

- EU-KLEMS 성장 회계 계정, OECD STAN,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의 3개 원자료를 대상으로 산업별 매칭을 시킬 경우 제조업 중에서 총 13개 산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
  · 3개의 원자료는 모두 ISIC(국제산업표준분류)에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산업 분류를 무리 없이 매칭시키는 것이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참고 2】를 참조)

-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공업을 제외한 9개 중화학 공업과 전제조업에 대해서만 분석함
  · 9개 산업은 석유화학, 금속, 일반기계, 사무·회계·컴퓨터, 전기기계, 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자동차, 조선임
  · 전 제조업은 경공업 부문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참고 2】 본 보고서 상의 산업 분류와 원자료 상 산업 분류 비교

< 본 보고상의 산업 분류와 OECD STAN 상의 산업 분류 결합 >

본 보고서 산업 명칭	OECD STAN 상의 산업 명칭	코드
음식료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15-16
섬유·의류	Textiles, Textile Products, Leather And Footwear	17-19
목재·펄프·종이·인쇄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20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 Publishing	21-22
석유화학	Chemical, Rubber, Plastics And Fuel	23t25
비금속광물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26
금속제품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27-28
일반기계	Machinery And Equipment, N.E.C.	29
사무·회계·컴퓨터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30
전기기계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31
음향·통신 장비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32
의료·정밀 기기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33
자동차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34
조선	Building And Repairing Of Ships And Boats	351

< 본 보고상의 산업 분류와 EU-KLEMS 상의 산업 분류 결합 >

본 보고서 산업 명칭	EUKLEMS 상의 산업 명칭	코드
음식료	Food , Beverages And Tobacco	15t16
섬유 · 의류	Textiles, Textile , Leather And Footwear	17t19
목재 · 펄프 · 종이 · 인쇄	Wood And Of Wood And Cork	20
	Pulp, Paper, Paper , Printing And Publishing	21t22
석유화학	Chemical, Rubber, Plastics And Fuel Products	23-25
비금속광물	Other Non-Metallic Mineral	26
금속제품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27t28
일반기계	Machinery, Nec	29
사무 · 회계 · 컴퓨터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30
전기기계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31
음향 · 통신 장비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32
의료 · 정밀 기기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33
자동차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34
조선	Building And Repairing Of Ships And Boats	351

< 본 보고상의 산업 분류와 OECD IO 자료 상의 산업 분류 결합 >

본 보고서 산업 명칭	OECD IO 상의 산업 명칭	코드
음식료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4
섬유 · 의류	Textiles, Textile Products, Leather And Footwear	5
목재 · 펄프 · 종이 · 인쇄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6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7
석유화학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8
	Chemicals Excluding Pharmaceuticals	9
	Pharmaceuticals	10
	Rubber & Plastics Products	11
비금속광물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2
금속제품	Iron & Steel	13
	Non-Ferrous Metals	14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 Equipment	15
일반기계	Machinery & Equipment, Nec	16
사무 · 회계 · 컴퓨터	Office, Accounting & Computing Machinery	17
전기기계	Electrical Machinery & Apparatus, Nec	18
음향 · 통신 장비	Radio, Television & Communication Equipment	19
의료 · 정밀 기기	Medical, Precision & Optical Instruments	20
자동차	Motor Vehicles, Trailers & Semi-Trailers	21
조선	Building & Repairing Of Ships & Boats	22

○ **분석 대상 기간: 1990년 이후부터 최근(2005년 또는 2006년)까지의 기간**

- 일부 국가의 경우 1970년부터 자료 이용이 가능하나, 분석 대상 6개국의 타임 스팬을 통일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 부터로 한정함

○ **분석 방법: 산업별로 3가지 항목(노동생산성, 중간재국산화율, 에너지의존도) 에 대한 국가별 시기별 비교[3)]**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1인당 명목부가가치):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취업자 1인당 명목 부가가치를 계산함
  -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 취업자수(EMPN)
  - 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

- 중간재 국산화율: OECD IO 테이블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재중에서 수입중간재를 제외한 국산중간재의 비중을 도출함
  -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 상의 중간재 투입액을 이용하여 도출함

- 에너지의존도(에너지이용의 비효율성): EU-KLEMS 통계상의 총산출액 대비 에너지 중간투입액의 비중을 계산함
  - 명목 중간에너지투입액(IIE) ÷ 명목 총산출액(GO)
  - IIE: 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
  - GO: 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

- 전제조업에 대해서도 3가지 산업효율성 지표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실질부가가치증가율, 부가가치 대비 투자 비율도 제시하여 전제조업의 외형상 성장 속도를 가늠해 보았음

3) 원자료 모두 분석 대상국가의 자국통화 단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연평균 환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모두 미 달러화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침.

2. 국내 제조업의 취약 요인 국제 비교

1) 전 제조업의 외형 지표 및 취약 요인 국제 비교

○ 전제조업 외형 지표 비교

- **제조업 성장률**: 한국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1~2006년 연평균 6.5%로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서 빠른 제조업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일본과 독일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의 경우 1996~2000년보다 2001~2006년 기간에서 제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만 한국의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긍정적이나, 이는 선진국과 중진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전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

	1990~1995	1996~2000	2001~2006
미 국	2.8%	5.4%	1.5%
일 본	1.2%	1.1%	2.0%
독 일	-2.2%	2.1%	2.3%
프 랑 스	0.9%	3.1%	1.2%
이탈리아	1.5%	1.1%	-0.5%
한 국	7.7%	6.9%	6.5%
평 균	2.0%	3.3%	2.2%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연간 증가율의 기간중 평균치임.

- **제조업의 투자/부가가치 비율**: 한국의 전체 제조업의 투자가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8.7%로 비교 대상 국가들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제조업의 투자/부가가치 비율이 2001~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5%로 한국과 더불어 20%대의 투자율을 기록하고 있음

< 전제조업의 명목 투자액/부가가치 비율 >

	1990~1995	1996~2000	2001~2006
미 국	12.6%	14.1%	11.2%
일 본	-	-	-
독 일	15.0%	14.6%	13.2%
프 랑 스	16.5%	15.3%	15.0%
이탈리아	22.8%	24.5%	25.0%
한 국	35.5%	29.3%	28.7%
평 균	20.5%	19.6%	18.6%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기간중 평균치임.

○ 제조업 취약 요인

- **1인당 부가가치**: 한국의 전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2006년 기준 5만 2,978달러로 비교 대상 5개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미국의 경우 취업자 1인이 1년 동안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10만 9,339달러로 한국의 2배를 상회함 (분석 대상 6개국 평균은 7만 7,870달러로 한국의 약 1.5배를 기록함)
  - 다만 1995~2006년 동안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한국이 98.1%로 비교 대상 5개국중에서 가장 빠른 개선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2006/1995(%)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67,452.5	81,585.8	109,339.3	62.1	17,000억달러
일 본	88,007.9	82,761.5	83,729.0	-4.9	9,335억달러
독 일	58,018.9	48,530.0	81,740.2	40.9	6,090억달러
프 랑 스	62,231.7	52,283.5	79,331.9	27.5	2,611억달러
이탈리아	48,479.0	41,174.2	60,102.8	24.0	3,026억달러
한 국	26,749.1	31,160.3	52,978.9	98.1	2,208억달러
평 균	58,489.8	56,249.2	77,870.4	33.1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한국의 전 제조업 중간재 국산화율은 2005년 기준 71.4%로 비교 대상 5개국중 독일(69.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4)]
  ·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2005년 기준 84.9%를 기록하고 있음 (2005년 기준 분석 대상 6개국 평균은 76.6%임)

< 전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8.7	85.1	82.6
일 본	91.2	89.5	84.9
독 일	77.0	71.5	69.5
프 랑 스	78.1	78.7	72.6
이탈리아	75.7	73.1	78.5
한 국	73.9	69.9	71.4
평 균	80.8	78.0	76.6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한국의 전 제조업의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투입액 비중은 2005년 기준 10.8%로 비교 대상 5개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일본이 가장 낮은 에너지의존도(3.4%)를 보이며 6개국 평균은 6.9%로 나타남
  · 1990년 이후 한국의 에너지에 대한 산업 의존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제조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2005−1990
미 국	6.8	4.8	5.7	6.8	0.0%p
일 본	2.7	2.6	2.9	3.4	0.7%p
독 일	5.6	4.6	4.9	6.1	0.5%p
프 랑 스	5.3	4.7	6.3	7.0	1.7%p
이탈리아	5.2	5.1	6.3	7.0	1.8%p
한 국	6.6	7.5	10.7	10.8	4.2%p
평 균	5.4	4.9	6.1	6.9	1.5%p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임.

4) 단 독일의 경우 중간재 국산화율이 낮은 것은 산업연관표상의 중간재가 부품·소재는 물론 원자재, 에너지, 서비스 등 광범위한 생산 투입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독일의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는 말할 수 없음.

2) 주요 제조업 부문별 취약 요인 국제 비교

① 석유화학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석유화학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8만 6,580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평균 12만 5,843달러의 약 69%에 불과함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미국으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2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약 2.4배에 해당됨

-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2006년 1인당 부가가치액이 1995년과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노동 투입의 효율성이 높아졌기 보다는 석유화학 업종의 기초 원료인 석유 가격이 2000년 이후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석유화학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104,925.3	120,266.0	207,886.5	3,717억달러
일 본	162,209.2	140,973.2	136,714.4	1,631억달러
독 일	77,980.0	64,656.3	112,271.8	970억달러
프 랑 스	98,773.2	84,662.3	122,873.4	462억달러
이탈리아	82,657.0	61,807.6	88,731.2	390억달러
한 국	48,349.7	48,783.1	86,580.0	433억달러
평 균	95,815.7	86,858.1	125,842.9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석유화학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53.3%로 비교 대상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76.2%)이며, 6개국 평균은 61.7%임

< 석유화학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7.0	80.6	76.2
일 본	80.3	74.1	65.8
독 일	69.1	56.3	54.1
프 랑 스	72.4	67.0	58.2
이탈리아	58.2	51.0	62.5
한 국	58.9	52.9	53.3
평 균	71.0	63.6	61.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석유화학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32.4%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은 22.8%로 한국과 약 10%p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석유화학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2005년 기준 9.3%로 타 국가들에 비해 생산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 지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석유화학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 국	26.0	18.8	23.1	23.5
일 본	7.0	5.9	7.5	9.3
독 일	15.7	12.9	17.8	22.5
프 랑 스	19.7	15.8	23.4	24.0
이탈리아	19.2	17.9	22.6	25.4
한 국	23.4	25.7	34.5	32.4
평 균	18.5	16.2	21.5	22.8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② 금속제품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금속제품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6만 863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평균 7만 4,901달러의 약 81% 수준임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미국으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9만 4,542달러이며, 이는 한국의 약 1.6배에 해당됨

< 금속제품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63,666.9	69,937.8	94,542.1	1,232억달러
일 본	92,066.6	82,435.3	84,402.4	1,132억달러
독 일	53,197.1	44,822.3	77,047.6	924억달러
프 랑 스	57,375.9	48,008.7	74,125.5	237억달러
이탈리아	49,976.5	39,019.9	58,427.6	435억달러
한 국	35,118.3	36,849.6	60,862.7	192억달러
평 균	58,566.9	53,512.3	74,901.3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금속제품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78.5%로 비교 대상 국가중 3위를 기록함

-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일본(87.1%)이며, 6개국 평균은 77.1%임

< 금속제품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9.7	84.3	81.3
일 본	91.1	97.5	87.1
독 일	76.2	70.3	66.7
프 랑 스	74.4	76.8	72.1
이탈리아	75.4	74.9	76.7
한 국	79.0	77.7	78.5
평 균	80.9	80.3	77.1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금속제품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7.6%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은 4.2%로 한국과 약 3.4%p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가장 낮은 에너지 의존성을 보이는 국가는 프랑스로 2005년 기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금속제품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 국	3.9	3.2	2.9	2.8
일 본	3.5	3.4	3.9	3.7
독 일	6.6	4.9	4.9	5.1
프 랑 스	3.5	3.4	3.0	2.6
이탈리아	4.1	4.0	3.8	3.6
한 국	4.2	5.5	7.3	7.6
평 균	4.3	4.1	4.3	4.2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③ 일반기계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일반기계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3만 9,656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평균 7만 6,182달러의 약 52% 수준에 불과함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미국으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1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일반기계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61,231.2	73,501.0	102,499.2	212억달러
일 본	87,031.1	77,806.0	85,233.9	67억달러
독 일	61,443.0	51,184.6	87,012.2	46억달러
프 랑 스	54,997.5	47,951.6	75,847.8	8억달러
이탈리아	52,683.1	45,608.3	66,841.6	8억달러
한 국	20,371.0	23,930.0	39,655.8	24억달러
평 균	56,292.8	53,330.2	76,181.8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 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일반기계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87.4%로 비교 대상 국가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일본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90.9%이며 대상 6개 국가의 평균은 82.4%를 기록하고 있음

< 일반기계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8.9	85.5	83.4
일 본	96.8	93.8	90.9
독 일	80.6	74.9	74.5
프 랑 스	78.6	83.4	76.1
이탈리아	83.1	81.5	82.4
한 국	79.4	83.1	87.4
평 균	84.6	83.7	82.4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일반기계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2.7%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은 1.6%로 한국과 약 1.1%p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에너지 의존성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과 독일로 2005년 기준 모두 1.1%의 낮은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음

< 일반기계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 국	1.5	1.2	1.2	1.3
일 본	1.0	1.1	1.2	1.1
독 일	2.1	1.7	1.2	1.1
프 랑 스	1.5	1.5	1.3	1.2
이탈리아	1.3	1.6	1.9	1.9
한 국	1.3	1.7	2.4	2.7
평 균	1.4	1.5	1.6	1.6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④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6만 2,277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중 미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미국으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16만 8,702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한국보다 낮은 4만 달러대의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88,382.3	127,494.0	168,701.9	450억달러
일 본	111,165.5	92,562.9	40,862.2	467억달러
독 일	76,135.3	79,485.3	115,210.5	452억달러
프 랑 스	69,376.1	21,455.6	99,299.1	100억달러
이탈리아	72,276.6	53,654.8	40,474.5	152억달러
한 국	39,689.5	50,745.7	62,277.1	85억달러
평 균	76,170.9	70,899.7	87,804.2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36.4%로 비교 대상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79.3%)이며, 6개국 평균은 62.0%임

<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73.7	80.5	79.3
일 본	87.1	83.2	75.7
독 일	59.7	58.1	55.0
프 랑 스	47.6	58.4	62.2
이탈리아	61.9	66.8	63.6
한 국	54.6	57.4	36.4
평 균	64.1	67.4	62.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2.8%로 비교 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일본을 제외한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은 1.3%이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1% 내외의 낮은 에너지 의존성을 기록하고 있음

<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 국	0.7	0.5	0.5	0.6
일 본	1.0	0.9	0.9	1.0
독 일	1.4	1.2	0.8	1.1
프 랑 스	1.8	1.9	1.1	1.1
이탈리아	–	–	–	–
한 국	1.2	1.7	2.8	2.8
평 균	1.2	1.2	1.2	1.3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⑤ 전기기계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전기기계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4만 1,361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평균 7만 4,871달러의 약 55%에 불과함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미국으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1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전기기계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71,109.7	83,054.2	102,240.9	721억달러
일 본	86,581.5	76,475.2	82,396.9	974억달러
독 일	63,068.5	57,220.4	87,052.2	152억달러
프 랑 스	57,570.4	50,824.9	71,364.4	64억달러
이탈리아	47,001.0	38,798.5	64,808.9	86억달러
한 국	17,259.3	23,462.7	41,361.0	422억달러
평 균	57,098.4	54,972.7	74,870.7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전기기계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62.9%로 비교 대상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일본(86%)이며, 6개국 평균은 76.2%임

< 전기기계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4.5	84.7	82.3
일 본	91.1	90.2	86.0
독 일	82.6	77.0	74.9
프 랑 스	78.6	80.8	71.8
이탈리아	75.2	73.3	79.6
한 국	65.8	56.3	62.9
평 균	79.6	77.1	76.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전기기계 업종의 에너지 의존도는 2.7%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전기기계 업종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의존성을 보이는 국가는 프랑스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1.1%에 그치고 있음

-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은 1.8%로 한국과 약 0.9%p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전기기계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국	2.2	1.7	1.8	1.9
일본	1.3	1.5	1.7	1.9
독일	0.0	1.5	0.9	1.3
프랑스	1.1	1.2	0.9	1.1
이탈리아	–	–	–	–
한국	1.3	1.7	2.4	2.7
평균	1.2	1.5	1.6	1.8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⑥ 음향·통신 장비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음향·통신 장비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7만 4,599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평균 9만 3,392달러의 약 80% 수준을 기록함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일본으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11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음향·통신 장비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81,746.0	109,292.7	107,264.4	464억달러
일 본	97,678.9	108,550.1	110,116.8	154억달러
독 일	54,144.9	62,914.0	108,707.7	275억달러
프 랑 스	69,052.1	75,816.6	78,545.4	99억달러
이탈리아	52,372.6	51,930.2	81,117.9	82억달러
한 국	38,243.2	50,188.2	74,599.0	29억달러
평 균	65,539.6	76,448.6	93,391.9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음향·통신장비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59.6%로 비교 대상 국가중 자료가 미비된 미국과 독일(52.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일본(82.2%)이며, 미국을 제외한 5개국 평균은 67.5%임

< 음향·통신 장비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1.8	–	–
일 본	93.0	90.1	82.2
독 일	68.1	62.1	52.5
프 랑 스	77.1	78.6	74.5
이탈리아	58.7	52.0	68.5
한 국	68.8	51.9	59.6
평 균	74.6	66.9	67.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음향·통신 장비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2.6%로 비교 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은 1.5%로 한국과 약 1.1%p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음향·통신 장비 업종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의존성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로 모두 0.9%에 그치고 있음

< 음향·통신 장비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 국	1.1	0.9	0.9	0.9
일 본	1.4	1.6	1.6	1.5
독 일	0.0	2.0	0.9	0.9
프 랑 스	1.4	1.4	1.2	1.3
이탈리아	–	–	–	–
한 국	1.3	1.6	2.4	2.6
평 균	1.0	1.5	1.4	1.5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⑦ 의료·정밀 기기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의료·정밀 기기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3만 2,582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평균 7만 1,276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미국으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9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의료·정밀 기기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66,900.5	76,671.2	90,789.0	1,873억달러
일 본	69,536.5	71,555.8	76,278.6	1,298억달러
독 일	44,985.3	45,972.6	79,831.9	1,018억달러
프 랑 스	65,013.8	57,161.4	86,821.0	303억달러
이탈리아	49,149.6	43,129.9	61,351.0	159억달러
한 국	20,930.7	20,405.6	32,581.6	297억달러
평 균	52,752.7	52,482.8	71,275.5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의료·정밀 기기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76.6%로 비교 대상 국가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일본의 의료·정밀 기기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84.8%이며, 자료 이용이 불가능한 미국을 제외한 6개국 평균은 77.1%임

< 의료·정밀 기기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6.2	–	–
일 본	91.2	89.5	84.8
독 일	83.1	74.5	72.7
프 랑 스	78.6	81.4	75.8
이탈리아	64.8	61.1	75.8
한 국	83.1	76.4	76.6
평 균	81.1	76.6	77.1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의료·정밀 기기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2.7%로 자료가 미비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은 1.4%로 한국과 약 1.3%p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의료·정밀 기기의 에너지 의존성은 0.9%이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의료·정밀 기기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 국	1.0	0.8	0.8	0.9
일 본	1.0	1.1	1.2	1.3
독 일	1.2	1.2	0.8	1.0
프 랑 스	1.2	1.2	0.9	1.0
이탈리아	–	–	–	–
한 국	1.2	1.5	2.5	2.7
평 균	1.1	1.2	1.3	1.4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⑧ 자동차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자동차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5만 1,978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평균 8만 1,975달러의 약 63%에 불과함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일본으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11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약 2.2배에 해당됨

< 자동차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	88,800.8	90,101.4	969억달러
일 본	104,193.9	98,449.9	114,419.7	1,184억달러
독 일	79,514.8	52,146.9	106,689.4	892억달러
프 랑 스	71,243.2	65,942.7	78,382.4	166억달러
이탈리아	47,415.3	43,339.7	56,282.1	97억달러
한 국	32,030.0	30,908.4	51,977.5	196억달러
평 균	66,879.4	63,264.7	82,975.4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 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자동차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88.8%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일본(95.7%)이며, 6개국 평균은 80.2%임
  ·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산화율은 70%대에 그치고 있음

< 자동차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5.4	79.2	77.4
일 본	98.6	97.4	95.7
독 일	76.7	76.0	73.2
프 랑 스	75.6	80.5	70.5
이탈리아	75.7	73.3	75.8
한 국	85.4	89.1	88.8
평 균	82.9	82.6	80.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자동차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3.3%로 비교 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은 1.4%로 한국과 약 1.9%p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에너지 의존성은 2005년 기준 각각 0.7% 및 0.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 지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 국	0.9	0.7	0.7	0.7
일 본	0.9	1.0	1.0	0.8
독 일	2.6	1.9	1.3	1.2
프 랑 스	1.4	1.2	1.0	1.1
이탈리아	–	–	–	–
한 국	1.5	2.0	3.3	3.3
평 균	1.5	1.4	1.5	1.4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⑨ 조선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 한국의 2006년 기준 조선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5만 7,573달러로 비교 대상 6개 국가 평균 7만 466달러의 약 82% 수준을 기록함

-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지는 국가는 프랑스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8만 7,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조선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

미 달러	1995	2000	2006	명목부가가치(2006)
미 국	-	50,666.2	76,965.3	127억달러
일 본	87,925.5	87,239.7	76,145.1	55억달러
독 일	44,881.4	37,198.2	77,385.0	20억달러
프 랑 스	29,403.9	34,470.1	86,852.6	26억달러
이탈리아	32,943.4	36,106.3	47,874.9	21억달러
한 국	25,845.7	33,258.7	57,573.3	86억달러
평 균	44,200.0	46,489.9	70,466.0	-

자료: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함.
주: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VALU,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 취업자수(EMPN,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로 계산함.

○ 중간재 국산화율

- 한국의 2005년 기준 조선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64.1%로 비교 대상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일본(95.7%)이며, 6개국 평균은 75.7%임

< 조선 업종의 중간재 국산화율 >

%	1995	2000	2005
미 국	88.3	80.0	79.7
일 본	98.1	96.7	95.7
독 일	57.8	63.1	65.4
프 랑 스	69.5	77.9	72.8
이탈리아	77.1	73.7	76.7
한 국	69.5	74.6	64.1
평 균	76.7	77.7	75.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등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중간투입재 국산화율 = 국산재 중간수요 ÷ (국산재 중간수요 + 수입재 중간수요)
2) 이탈리아의 2005년 수치는 2004년 산업연관표 기준.

○ 에너지의존도

- 한국의 2005년 기준 조선 업종의 에너지 의존성은 3.1%로 비교 대상이 가능한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자료가 미비된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4개국 평균은 1.4%로 한국과 약 1.7%p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조선 업종의 에너지의존성(에너지투입/총산출) >

%	1990	1995	2000	2005
미 국	1.3	1.0	1.2	1.3
일 본	–	–	–	–
독 일	–	1.9	1.1	1.3
프 랑 스	0.0	0.0	0.0	0.0
이탈리아	–	–	–	–
한 국	1.5	2.0	2.9	3.1
평 균	0.9	1.2	1.3	1.4

자료: EU-KLEMS 성장회계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에너지 의존성은 EU-KLEMS 통계중 에너지중간재 투입액(Intermediate energy inputs at current purchasers' prices)을 총산출액(Gross output at current basic prices)으로 나눈 값으로 대용.

3. 정책적 시사점

○ 아직 중진국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역할이 중요함

- 경제가 발전할수록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부문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현재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임
  -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6년 기준 각각 23.2% 및 20.7%로 여전히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제조업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일본의 27%, 독일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국내 제조업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제조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국내 제조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기술·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경제 발전 단계상의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가가치 생산 능력의 격차 현상일수도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하이앤

드(High End)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절실함
  - ·우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577 전략'의 추진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의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원천 기술 연구는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원천기술 개발에 정부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나아가 기술개발 성과가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학과 산업의 중간에 위치한 매개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도 요구됨
  - ·한편 기술경쟁력의 핵심인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전문인력 영입도 꾸준히 확대해야 할 것임

○ 둘째, 노동 시장의 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를 통해 노동력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중 한 가지는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 뒤지는 것은 노동력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는 세계적으로 한국 근로자의 성실성과 교육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노동력의 적재적소에 대한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직업 교육의 내용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 추세와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탈공업화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직 기술자 양성위주의 직업교육체계를 탈피해야 함

· 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산업내 인력 비중을 높여나가야 함

○ 셋째,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경제성장 견인력을 극대화해야 함

- 국내 제조업의 중간재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한 과도한 외화 유출로 제조업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새로운 부품·소재 부문의 경우 국제 표준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 넷째, 에너지 다소비 생산 구조 개선을 통해 에너지의존도를 낮추어야 함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유류 가격은 선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약 85% 수준에 불과함

· 특히 산업용 전력 요금의 경우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OECD 19개국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따라서 제조업의 높은 에너지 의존성 문제는 상당 부분 생산 과정 자체에서의 에너지 낭비적 요인 문제라고 판단됨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업용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투입재의 절감 정도에 따르는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산업 연관이 높은 기업들끼리 집적화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특화 산업 단지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섯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제조업의 수요 시장 육성에도 주력해야 함**

- 최근 국내 일부 제조업이 선전하고 있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주요 시장에 대하여 3.8%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빠른 공업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 요인을 극복하고 국내 제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해외 시장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선진국 시장에 대한 FTA를 확대해야 함
  · 또한 중국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됨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3669-4030)**

이주량 연구위원 **(jryanglee@hri.co.kr, 02-3669-4334)**

HRI 經濟 指標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구 분			2008(E)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5	4.3	3.1	-3.4	2.2	-4.1	-0.2	-2.2
	최종소비지출 (%)		3.9	2.6	2.0	-1.9	1.6	-2.2	-0.6	-1.4
	민간소비 (%)		4.0	2.3	1.4	-3.7	0.9	-4.2	-1.4	-2.8
	총고정자본형성 (%)		-0.5	0.6	1.8	-7.3	-1.7	-5.0	0.4	-2.3
	건설투자 (%)		-1.9	-0.3	0.2	-5.6	-2.1	1.8	1.9	1.8
	설비투자 (%)		1.5	1.1	4.3	-14.0	-2.0	-20.3	-2.6	-11.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2.1	-1.3	-85.8	75.2	-64.1	175	70	245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66	-3	-79	15	-133	156	21	177
		수출 (억 $)	994	1,145	1,152	931	4,223	1,669	2,006	3,675
		증가율 (%)	(17.4)	(23.1)	(27.3)	(-9.9)	(13.6)	(-22.0)	(-3.6)	(-12.6)
		수입 (억 $)	1,061	1,148	1,231	915	4,353	1,513	1,985	3,498
		증가율 (%)	(28.9)	(30.5)	(43.0)	(-9.0)	(22.0)	(-31.5)	(-7.4)	(-19.6)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7					2.9		
	실업률 (%)		3.2					4.0		
	국제유가(Dubai, 달러)		94.29					65 달러 내외		
원/달러 환율(원, 평균)			1,103.36					1,250		